대검찰청 뉴스레터

2019년 5월호

01 검은 띠를 맨 검사들
서울경제 기획 기사 '전문검사가 뛴다'

02 전지적 검찰 시점
전국 검찰 소식

03 세계로 뻗어나가는 검찰
황철규 부산고검장 IAP 회장 당선

04-1 검찰 우체국에서 보내드립니다
가족들에게 쓰는 편지

04-2 어버이날 맞이 효도대작전
전국 효도 자랑

05 뛰어날 檢 빼어날 察
2019년 1분기 공판업무 우수 사례

06 이준 JUSTICE 캠프
검찰 꿈나무들의 뜻깊은 하루

07 도전 퀴즈왕!
가로세로 낱말풀이

01 검은 띠를 맨 검사들

서울경제 기획 기사 '전문검사가 뛴다'

뉴스레터 애독자 분들이라면 아마 '공인전문검사'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날로 지능화·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맞서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양성해 국민에게 양질의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검찰의 노력이 시행된 이 제도도 통해 현재까지 45개 분야 174명(직지자 포함)이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습니다. 그중 전문성이 '대가(大家)' 수준에 이른 1급 공인전문검사인 '블랙벨트' 인증자는 5명, 2급인 '블루벨트' 인증자는 모두 169명입니다. 이렇게 인증받은 공인전문검사들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경제(19.03.12.) | "강력범죄 트라우마 치유할 원스톱기구 필요"

서울경제

2019년 03월 12일 화요일 A33면 피플

"강력범죄 트라우마 치유할 원스톱기구 필요"

전문검사가 뛴다

<3> 박윤석 수원지검 부장검사

4차 산업혁명이 점차 사회적으로 급속한 변화를 불러오면서 다양한 범죄들이 등장하고 있다. 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한 지능범 등장하고 있다. 범죄의 양상도 갈수록 심각해진 사회에서 일반인 누구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수원지검 부장검사 박윤석 검사를 만나 그의 '전문성'을 들어보았다. 박 검사는 "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원스톱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는 한 기관만 맡아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적 보상, 의료적 치유 그리고 심리적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를 위한 원스톱 기구는 검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범죄 발생 시 가장 먼저 피해자를 만나는 것은 검찰이기 때문"이라